

정당후보 선호도, 전남은 민주 앞서고 광주는 安신당과 같아

광주, 여성·40~60대·서·북구, 민주당 후보 선호

전남, 여수·순천·나주 등 安신당 후보 높은 지지

정당후보 선호도

‘올 6월 광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안철수 신당’ 후보, 기타 후보 등이 대결할 경우 어느 후보를 가장 지지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후보의 지지가 37.5%로 같게 나왔다.

기타 후보는 10.8%였으며 ‘잘 모른다’는 답이 14.3%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높게 나온 점을 감안하면 정당지지도가 후보 지지도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성층, 40대·50대·60대 이상 연령층, 서·북구 거주층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반면 남성층, 20·30대 연령층, 동·남·광산구 거주층에서 ‘안철수 신당’ 후보 지지도가 더 높았다.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에서는 민주당 후보 선호도(41.3%)가 ‘안철수 신당’ 후보 선호도(37.3%)보다 더 높아

민주당 지지자의 충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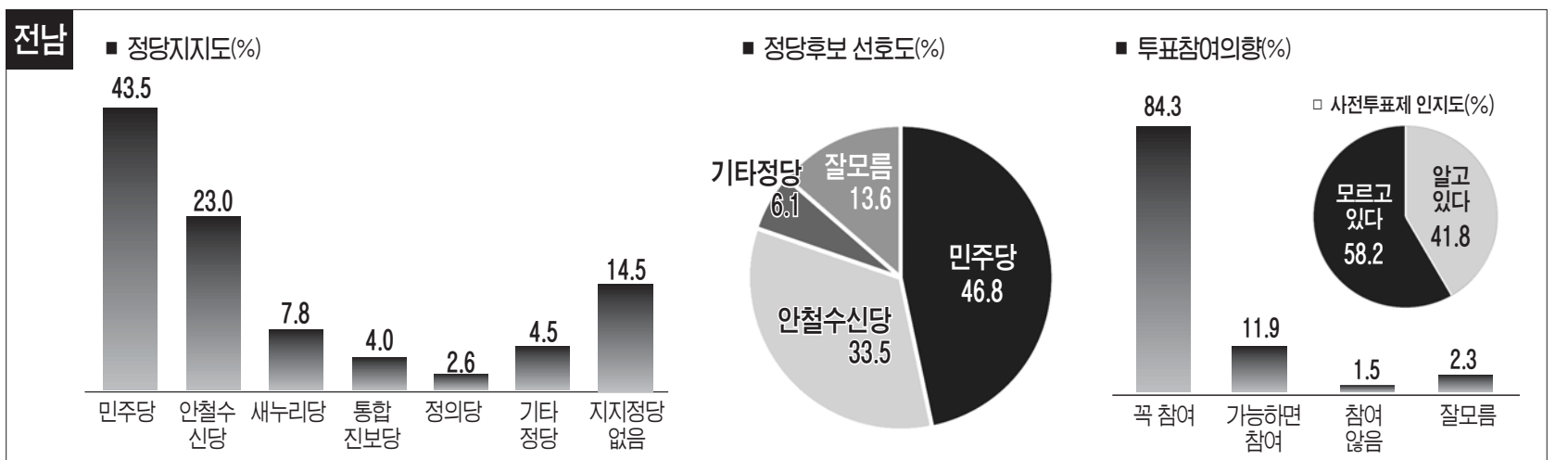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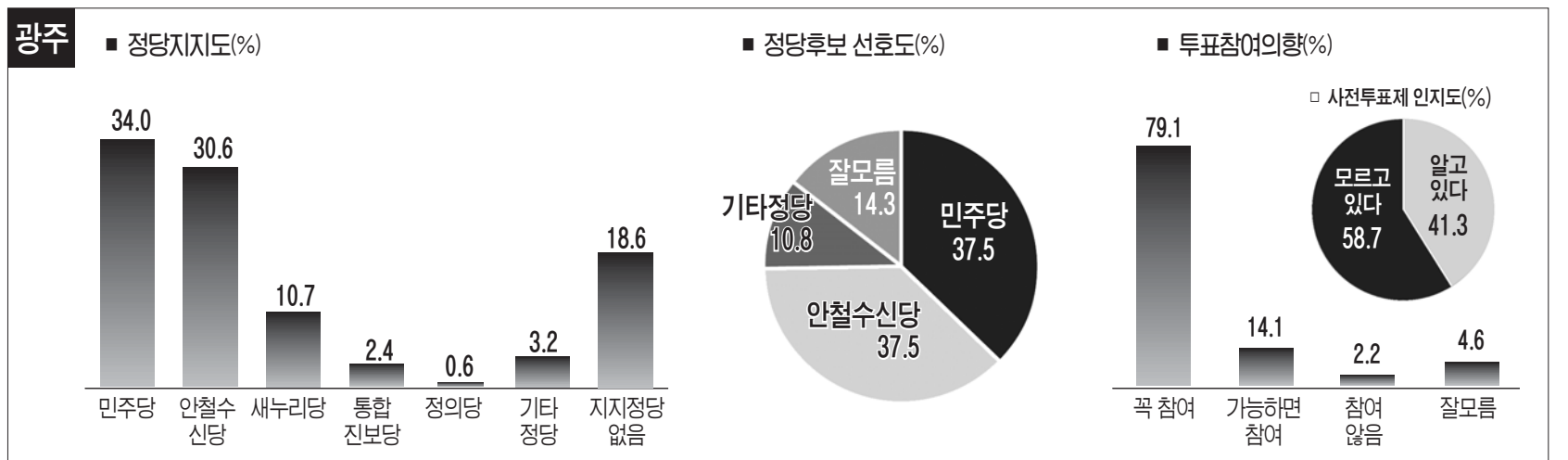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정당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 지지도(46.8%)가 ‘안철수 신당’ 후보(33.5%)보다 13.3%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정당 간 단순 정당지지도 격차(20.5%포인트)보다는 폭이 줄었다.

광주와 달리 여성층에서 ‘안철수 신당’ 후보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20·30대의 ‘안철수 신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여수·순천·나주·담양 등 상당수 시·군은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적극 참여층에서는 ‘49.2%대 33.5%’로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층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신당’ 후보 선호도가 ‘54.4%대 23.6%’로 높았다.



민주당-安신당 광주 접전, 전남은 민주가 2배

광주 34.0% 대 30.6%...전남 43.5% 대 23.0%

정당 지지도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안철수 신당’ 지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의 민주당 지지도는 ‘안철수 신당’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34.0%로, 30.6%를 얻은 ‘안철수 신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이었다.

이는 ‘안철수 신당’이 앞선 것으로 나왔던 기존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대비되는 결과여서 주목을 끌었다.

이어 새누리당(10.7%), 기타 정당(3.2%), 통합진보당(2.4%), 정의당(0.6%) 등의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파층은 18.6%로 조사됐다.

20·30대 연령층과 동구, 광산구 거주층을 제외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대부분 계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안철수 신당’보다 높았다.

반면 20·30대 연령층과 동·광산구 거주층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가 민주당을 높였다.

20~30대와 광산구 거주층의 경우 지지 정당

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4.4%, 23.8% 되는 등 무당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남지역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3.5%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신당’은 23.0%였다. 격차는 20.5%포인트나 됐다.

이어 새누리당(7.8%), 기타 정당(4.5%), 통합진보당(4.0%), 정의당(2.6%) 등 순이었다. 무당파층은 14.5%였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38.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반면 60대 이상(48.7%)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동부권인 여수(38.3%)·순천(33.1%)·곡성(35.0%) 등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반면 서남부권인 목포(50.4%)·신안(55.7%)·무안(52.4%)·완도(53.9%)·영암(54.7%)·함평(52.0%)·화순(52.1%) 등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순천(22.8%)·구례(25.0%)·영암(22.5%)·진도(23.8%)의 경우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파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꼭 투표 참여하겠다” 광주 79.1%, 전남 84.3%

사전투표제 10명중 6명 “모르고 있다”

투표참여 의향·사전투표제 인지

6·4 지방선거 관련, 광주 시민의 투표 참여 의향도는 ‘꼭 참여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참여층이 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능하면 참여’ 14.1%, ‘잘 모름’ 4.6%, ‘참여하지 않음’ 2.2% 등의 순이었다.

성·연령·지역별 모든 계층에서 ‘꼭 참여하겠다’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이 높은 가운데 남성층과, 40대·50대·60대 이상 연령층, 동·남구 거주층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의사가 전체 평균(79.1%)보다 더 높았다.

전남도민의 경우, ‘꼭 참여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참여 의사가 84.3%로 가장 높았으며, ‘가능하면 참여’ 11.9%, ‘잘 모름’ 2.3%, ‘참여하지 않음’ 1.5% 등의 순이었다.

남성층과 50대·60대 이상 연령층, 여수·순천 시 등의 거주층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의사가 전체 평균(84.3%)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사전투표제’를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광주 시민 중 58.7%가 ‘모르고 있다’고 답한 반면 ‘알고 있다’는 대답은 41.3%에 머물렀다. 광

주지역 유권자 10명 중 6명 가량이 사전투표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 거주층(51.5%)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모르고 있다’는 비인지를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꼭 투표참여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참여 의사가 54.1%가 사전투표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지역 유권자를 역시 사전투표제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대답(58.2%)이 ‘알고 있다’는 대답(41.8%)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0대(50.6%)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모르고 있다’는 비인지를 더 높였다.

한편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에 앞서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는 지난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첫 도입된데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 선거구를 떠나 있게 되는 유권자라도 ‘알달겨’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110명 무작위 추출 전화 설문

여론조사 어떻게 했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백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11일 이틀간 광주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 전남지역의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이뤄졌다.**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KT에 등재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비등재 번호도 사용했으며 성·연령대·지역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 비례 할당추출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또 지역·연령대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해 통계 처리했다.

조사에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기반한 ARS조사를 이용했고 표본오차는 광주가 95% 신뢰수준에 ±3.08%포인트, 전남은 ±2.96%포인트다.

일반적으로 ARS조사가 전화면접 조사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 충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사를 1단계 본조사와 2단계 보완조사를 실시, 표본의 대표성을 최대한 높였다.

광주의 경우 응답률(콘택트 수 대비 응답완료 수)은 4.9%로 통화연결 성공자 전체 2만502명 중 101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전남의 응답률은 7.0%로 통화연결 성공자 전체 1만5627명 중 11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한편, 광주일보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현·현직 국회의원, 전 광역단체장, 시민활동가 등 중량감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본보 자체 심의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됐던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혀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사정상 매매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전망 좋음
시세/분양가, 2억원 정도
매매가, 1억 5,500만원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층 상가, 25평
현재, 편의점 임대중
(보 3천에 월125만원)
시세/분양가, 2억5천만원 정도
매매가, 1억 7,500만원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20% 보장
투자금 3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집기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